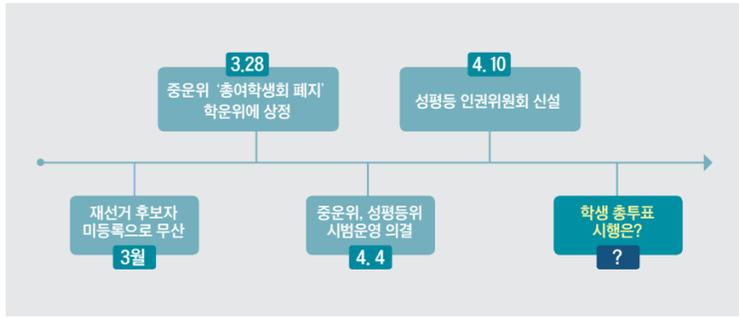


# 6개월 넘도록 미뤄진 총여 존폐 총투표 총학, “10월 셋째주 학운위에서 논의 계획”



이서림 기자 sllee1001@khu.ac.kr

【국제】총여학생회(총여) 존폐를 두고 학생총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총여를 성평등인권위원회(성평등위)로 대체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대의기구가 아닌, 실제 학생 여론을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학생총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때문에 총여는 비대위로 존속되고 있고, 성평등위는 ‘임시’ 운영 중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총투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총학생회(총학) 김효형(일본어학 2011) 회장은 “투표를 1학기에 진행하려고 했으나, 여러 학내 이슈가 발생했다”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학생들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학기에 들어서도 총장 선출제 같은

급격한 이슈와 추석 연휴로 총투표를 시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총학 학생회칙 3장 26조에 따르면 ‘학생총투표는 총학생회장 또는 중운위원 2분의 1 또는 확대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4분의 1 또는 분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학운위와 중운위의 의결을 통해 요구가 있을 때로부터 21일 이내, 학생총투표 7일 이전에 사유와 안건을 명시해 투표시행을 공고’해야 한다. 이런 회칙과 총여 존폐의 의미를 고려할 때 사실상 학운위 개최가 필요한 상황이다.

총여 존폐를 결정하기 위한 총투표 시행에 학운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총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총학은 총여 존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난 4월부터 중운위→학운위→학생총투표에 이르는 일정 조율을 6개월 가량 이어오고 있다. 현재 총여 폐지 안건이 상정되기 위

한 학운위 소집 데드라인은 오는 2학기 중간고사로 예측된다.

김 회장은 “10월 셋째 주에 총여 존폐 총투표 관련 학운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경우 총투표는 중간고사 기간 중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11월에 총학을 비롯한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일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투표를 중간고사 기간에 진행한다면 투표율이 관건이다. 김 회장은 “회칙의 재개정이나 탄핵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며 “중간고사 기간인 만큼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학은 10월 셋째 주에 열리는 학운위에서 총여 폐지 절차와 일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 총학 임기 중 학생총투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성평등위와 총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총학생회 선거에서 총여 선거에 입후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총투표 전까지 성평등위가 복지 사업을 대리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여는 명목상의 기구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총여 김상현(응용물리학 2013) 전 부회장은 “총투표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중도 일반열람실, 복합공간으로 조성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서울】지난 17일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일반열람실과 여학생열람실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중앙도서관은 학생 설문을 토대로 열람실을 휴식과 학습이 모두 가능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재단장했다. 열람실 공사는 학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방학 기간인 7월 22일부터 진행됐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한 논의가 활기를 띤 것은 우리대학 동문인 SK네트웍스 최신휘 회장이 자신의 기부금 사용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서부터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약 9억원을 우리 학교에 기부하며 기부금이 중앙도서관 환경개선에 사용됐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 유현경 직원은 “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분부에 예산 신청을 하던 상황이였다”라며 “최 회장의 기부를 통해 노후 시설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열람실 리모델링과 더불어 오는 겨울방학 중 1층 로비를 재조성하고 그룹스터디룸을 새로이 조성하는 공사가 1차 사업에 해당한다.

중앙도서관은 매년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17년 설문 결과 복합적 공간에 대한 요구가 28%, 소그룹 스터디룸에 관한 요구가 23%에 달하기도 했다. 중앙도서관은 학생 의견을 적극 수용해 일반열람실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우리학교 이영립(한의학 70) 동문이 기증한 유품 다수가 중앙도서관 도마루 공간에 전시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 휴게 공간인 도마루 공간을 대신할 복합 공간을 일반열람실 개편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희운(사회학 2018) 씨는 “방학이 끝나고 와보니 열람실이 바뀌어 있었다”며 “쾌적해진 환경 덕에 열람실에 오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말했다.



# ‘카페 쿠퍼’ 효력 없던 다회용 컵, 4개월 만에 다시 일회용 컵으로 복귀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지난달 27일부터 우리학교 자회사형 카페 브랜드 ‘카페쿠퍼’가 모든 매장에서 다회용 컵 사용을 중단하고 일회용 컵으로 다시 교체했다.

우리 신문은 지난 6월, 카페쿠퍼의 다회용 컵 사용결정을 보도했다. ‘카페쿠퍼’ 일회용컵, 다회용컵으로 대체/대학주보 온라인, 2018.06.13) 당시 경희메니지먼트컴퍼니 측은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줄여보고자 다회용 컵

으로 대체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카페쿠퍼의 최초 계획은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정부 방침이 마련되기 전에 매장 내에서 머그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했고 이에 카페쿠퍼는 매장 내에 수거되는 다회용 컵을 머그컵처럼 재사용해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부임한 경희메니지먼트컴퍼니 강수호 팀장은 “처음 다회용 컵으로 바꿀 당시에는 재사용을 고려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다회용 컵은 일회용

컵과 외관상 다를 게 없어 이를 재사용했을 때 고객들이 불쾌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회용 컵으로의 교체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다회용 컵이 좀 튼튼한 일회용 컵 구실 밖에 하지 못했다”며 “다회용 컵 단가가 높은 것에 비해 환경보호에 크게 도움 되지 않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멀티미디어관 청소노동자 A씨는 “다회용 컵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쓰레기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며 “버려지는 컵의 양은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카페쿠퍼를 이용하는 배은서(사각디자인학 2017) 씨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들긴 했지만 재사용할 일

이 없었다”며 “재사용 컵을 쓰면 100원이 할인된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다회용 컵 재사용 시 100원 할인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며 “다회용 컵이란 것을 알아도 재사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다회용 컵이 결과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다회용 컵 재사용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기도 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카페쿠퍼가 다회용 컵을 포기했다고 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놓은 것은 아니다. 강 팀장은 “다회용 컵보다 좀 더 재활용 가능성이 높고 환경오염방지에 효용이

높은 빨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종이 빨대로 교체할 의향을 밝혔다. 이에 더해 “재활용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컵에 글씨를 새겨 넣지 않고 무지로 제작하고, 소모품인 컵 홀더도 새로운 방안을 구하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고려중인 계획을 전했다.

경희메니지먼트컴퍼니 측은 “다회용 컵을 일회용 컵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다시 단가가 내려가긴 했지만 종이빨대로 교체하면 단가가 비슷해질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환경복지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며 아직까지는 마찬가지로 가격인상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 2018학년도 2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다전공 신청 및 취소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포기기간: 10. 2.(화) ~ 10. 10.(수)
2. 다전공 신청 안내
  - 가. 신청대상: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 1)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재학 중인 자
  - 2)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신청만으로 이수신청을 승인함
  - 3) 국제캠퍼스 학생 중 서울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신청하는 학생도 동일하게 신청함
  - 4) 서울캠퍼스 학생 중 국제캠퍼스 전공을 다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제 학사지원과 안내문 참조
  - 5) 다전공은 제3전공까지 신청할 수 있음(본인의 전공 외에 2개 전공의 다전공 가능)
    - ※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8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 호 텔관광대학 학생의 동일학부 내 다전공 신청에 관한 사항은 호 텔관광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 나. 다전공 선발 인원(첨부 선발 정원 참조)
  - 1) 전년도(2017학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 ※ 경영학과는 전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을 서울, 국제 캠퍼스별로 각각 선발함
  - 2) 연간 선발인원으로 1학기 선발 후 잔여인원을 2학기에 선발함
  - 3) 학부 내 다전공 신청자와 연계전공 신청자는 인원 제한 없음
- 다. 다전공 선발 기준: 성적, 학업계획서, 면접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별로 선발함
  - ※ 경영대학 다전공 신청 자격기준
    - 경영학전공: 전학년 평점평균 3.30이상, (경제학원),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 회계·세무학전공: 전학년 평점평균 3.00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 라. 다전공 선발 학과(첨부 선발 정원 및 다전공 이수불가 전공 참조)
  - 1) 다전공 이수는 문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 텔관광대학, 이과대학, 생활과학대학, 국제캠퍼스 소속 대학에 설치된 전공을 대상으로 함. 단, 폐지된 전공,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와 국제캠퍼스 소속 전공 중 다전공 이수가 금지된 전공은 제외함
  - 2) 다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학과(부) 편제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졸업 시에는 편제변경에 따른 교과조치에 따라 전공명이 변경될 수 있음
- 마. 다전공 신청방법
  - 1)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클릭 → ‘제2전공’ 란에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 (제3전공 까지 선택 가능) → ‘저장’ 클릭
    - ※ 학부편제로 소속되어 있는 학생 중 재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제2전공 신청 후 제2전공 신청을 진행해야 함
  - 2) 신청한 본전공 및 다전공에 대하여 트랙 신청이 가능함(트랙까지 신청가능)

## 2018학년도 2학기 본전공(재전공) 선택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본전공(재전공)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학부로 입학한 학생 중 재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10. 2.(화) ~ 10. 10.(수)
2. 신청대상: 학부(과) 단위 입학생 중 세부전공 신청을 희망하는 재학생
  - 가. 해당학부: 영어학부, 법학부, 사회과학부, 언론정보학과(2010학년도 입학자), 경영학부, 관광학부(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생활과학부
  - 나. 예외학부: 전공배정제와 전공 학정제를 실시하는 학부, 호 텔관광대학(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자율전공학과, 미술학부, 무용학부
3. 신청방법
  - 가.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클릭 → ‘제1전공’ 란을 선택하여 소속 학부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 → ‘저장’ 클릭
  - 나. 신청한 본전공(재전공)에 대하여 트랙 신청이 가능함
  - 다. 본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편제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하며, 졸업 시에는 편제변경에 따른 교과조치에 따라 전공명이 변경될 수 있음

## 2018학년도 2학기 전공 트랙교육과정 신청 및 포기 안내

‘전공트랙과정’이란 학과의 교육과정 안에 마련된 전문화된 전공교육체계를, 학생들에게 재학 중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들을 일종의 계통도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학업 목표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랙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공에 대하여 전공트랙과정을 신청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안내를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10. 2.(화) ~ 10. 10.(수)
2. 신청대상: 전공 트랙교육과정 신청 또는 포기를 희망하는 재학생
3. 대상전공
  - 가. 트랙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본전공(재전공)
  - 나. 이수한 승인된 제2전공(또는 제3전공) 중 전공 트랙교육과정이 설치된 전공
4.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 전공란 우측 ‘전공트랙’ 란을 Pull-down 메뉴로 희망하는 트랙을 선택 → ‘저장’
  - ※ 유의사항
    - 1) 승인된 전공 및 트랙과정은 해당 교육과정에 맞추어 이수해야 함
    - 2) 단과대학별로 트랙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3) 한 전공당 트랙은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함
    - 4) 본전공(재전공) 신청은 학생의 입학 당시 모집단위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졸업 시에는 ‘경희대학교 학칙’ 교과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포기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 전공란 우측 ‘전공트랙’ 을 공란으로 변경 → ‘저장’
  - ※ 유의사항
    - 1) 승인된 전공 및 트랙과정은 해당 교육과정에 맞추어 이수해야 함
    - 나. 매 학기 트랙 신청기간에 신청한 트랙교육과정을 변경 및 포기가 가능함
    - 다. 트랙과정을 신청하였거나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졸업이 불가능함
    - 라. 각 전공별 트랙과정의 세부 이수요건에 관해서는 학과별 교육과정 시행세칙 또는 붙임 전공별 트랙교육과정 이 수안내를 참고하기 바람
      - ※ 트랙교육과정 관련 세부 문의는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 ※ 붙임: 전공별 트랙교육과정 이수 안내